

동아시아 탈원전 자연에너지 네트워크 311인 선언문

지난 3월 11일 대자연은 동아시아에서 처음 근대물질사회를 열었던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대재앙은 원자력 기술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이제 세계 원자력발전 역사는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세계 4위 경제 강국인 독일을 시작으로 스위스, 이탈리아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태국, 필리핀도 원전 포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핀란드도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를 시작하여, 원전 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중심에 서 있는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보가 앞으로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후쿠시마 대재앙 이전에 이미 빛나갔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력이 전체 전력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건설중인 원전 75%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가동중인 21기 원전과 건설중인 7기 원전이 있고, 중국은 가동중인 14기 원전과 건설중인 27기 원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대재앙 이전까지 일본은 54기 원전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중국의 탈원전 정책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국민 대다수의 탈원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일 3개 중 한국은 가장 강력한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방사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내 원전 말고도 중국 동해안과 일본 서해안의 원자력 발전소에 포위돼 있습니다. 일본 규수와 부산간 거리는 200km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핵의 위기는 서로 얽혀 있는 악의 순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화와 생명의 고리로 바꾸는 일은 한중일 시민사회의 거역할 수 없는 임무로 떠올랐습니다.

원자력은 반생명 · 반평화 · 반시민적입니다. 원자력 없이도 인류는 오래도록 살아왔습니다.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이 아니라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문명사회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왔습니다. 해 · 바람 · 물이 해답입니다. 탈원전은 에너지 포기가 아니라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산업은 해마다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해 에너지 생산 증가량의 절반은 자연에너지에서 얻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지대인 한중일이 원전에서 탈피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시민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해결도 이를 통해 비로소 가능합니다. 핵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지혜를 나눌수록 동아시아는 갈등이 아니라 평화, 파괴가 아니라 생명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탈원전 자연에너지 사회를 위한 100인 선언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기구로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를 함께 출범시킵니다.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는 3.11대재앙을 거울로 삼고자 311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100명씩, 나머지 111명은 중국과 그 밖에 나라 사람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오늘 한국에서 먼저 100인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한일 시민연대의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될 뿐 아니라, 311 대재앙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자연에너지 시대를 창조해가는 거룩한 지혜의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자력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이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선언자 311인